

굴곡가지의 높임법(존대법) 최소형 형성론

김 석 득
(연세대학교)

AN ANALYSIS OF HONORIFIC MINIMAM FORMS IN KOREAN

Suk-Deuk Kim
(Yonsei University)

굴곡가지의 높임법 (존대법) 최소형 형성론

김 석 득
(연세대학교)

높임법의 최소형 정립은 말본법주의 인지 뿐만 아니라, 사전의 어휘항목 설정에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 굴곡가지의 높임법 낱당이, 곧 최소형 인지의 요건은 첫째, 본포상 굴곡가지가 줄기에 직접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줄기에 직접 통합되는 요소가 높임법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형태소가 줄기에 직접 통합하여 존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홑최소형이 되고, 다른 것과 의무적으로 통합하여 줄기에 직접 통합되는 것은 겹최소형이다. 의무적인 겹최소형이 다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비의무적 요소와 통합하여 새로운 존대의 의미를 생성한다면, 이 또한 겹최소형이 된다.

높임의 최소형은 높임법과 의항법의 이차원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높임의 최소형의 전 본포는 높임의 등본과 함께, 의항법 체계에 걸쳐 있다. 최소형은 줄이시의 종류에 따라 다름도 주의할 일이다. 시상법은 높임법의 구성소일 뿐이며, 또한 그 자체 독립하는 것으로 높임법과 의항법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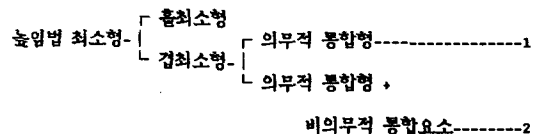
I. 최소형의 개념/조건.

굴곡가지 (굴곡접사)에 의한 높임법은 "높임법 최소형"으로 명시된다. 높임법의 최소형은 굴곡가지가 독립적으로 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한 한 낱당의 형식을 말한다. 말본법주의 최소형의 정립은 말본 자체의 범주 파악과 아울러 사전적 항목설정에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최소형의 성립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최소형의 성립 조건은 (1) 본포상 줄이시(서술어) 줄기(어간)에 직접 통합될 것, (2) 의미의 생성성이 있을 것 등이다. 줄이시 줄기에 직접 통합이 못되는 것은 독립된 높임법의 의미를 가지는 최소형이 되지 못한다. 의미의 생성성은 $a + b \rightarrow c$ 의 규칙을 말한다 (김석득

II. 최소형의 분류.

가지에 의한 존대법 최소형에는, 단순가지형태소로 이루어진 "홑최소형"과 단순형태소가 통합하여 새로운 말본법주를 형성하는 합성가지로 된 "겹최소형"이 있다. 겹최소형은 줄기(어간)에 직접 통합할 수 없는 불구적 가지형태소가 의무적(필수적)으로 다른 이웃가지 형태소를 통합한 뒤에야 비로소 줄기에 직접 통합할 수 있는 "의무적 통합형"과, 의무적 통합형에 다시 비의무적 통합 요소가 더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높임법 낱당을 생성하는 최소형으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겹최소형에 중점을 둔다.

III. 겹최소형.

1. 의무적 통합형으로 된 최소형 형성.

1) 동작성 줄기(+Vst)의 경우.

시상글쑈까지 중 "-디-" (회상 "-디-"의 변이형태), "-니-" (현실 진술상), "-시-" (회구상)는 결코 동작성 줄기와 직접 통합 되지 않는 불구형태수이다:+Vst =다. 이들은 각각 그 앞자리에 오는 말들이 높임 (자기 감양) 형태수 "-습-"과의 의무적 통합, "-습니-, -습디-, -습시-"를 이루어야 비로소 줄기와의 통합이 가능하다. 한편, "-습-"은 "-니-, -디-, -시-"를 떠나서 마침법 맺음가지(씨끝) "-다"에 통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며, "-다" 또한 역사적 현상법 이외에는 "-습니-, -습디-, -습시-"를 떠나서 줄기와 통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결국, 동작성 줄기의 경우, "-습니다", "-습디다", "-습시다"는 각각 가지(접미사)의 어순¹ 5-6-8로 된 의

¹동작성 움직임에 붙는 가지의 어순은 s p 8 이다: 강세(1), 하입/입음(2), 높임(3), 시상₁(4), 감양(5), 시상₂(6), 높임₂(7), 맺음(8). 보기: -뜨리-이-시-왔-습-디-이다.

무적 통합형이다. 이 통합형은 각각 말들이 높임법의 의미를 생성한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높임법의 등분을 이루는 최소형을 형성한다.

- 습니다 ← -습 - 니 - 다 = 5-6-8
- 아주높임 ← 감양 - 현실진술상 - 맺음

여기 생성된 아주 높임의 최소형은 그 안에 시상법과 마침법의 의항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소형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최소형은 높임법(김석득 1977)과 의항법(김석득 1989)의 "이자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상법은 그 자체 높임법 차원과 일치하는 최소형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의무적 통합형의 특성을 가진 최소형의 보기를 들어 본다.

- 습니다 = 5-6-8 : 아주높임.서실법
- 습디다 = 5-6-8 : 예사높임.서실법
- 습시다 = 5-6-8 : 예사높임.권유법
- 더이다 = 6-7-8 : 아주높임.서실법 (회상)
- 습니까 = 5-6-8 : 아주높임.물음법
- 습디까 = 5-6-8 : 예사높임.물음법
- 더이까 = 6-7-8 : 아주높임.물음법 (회상)

이러한 최소형은 사전에서 각각 독립된 어휘항을 차지해야 한다.

의무적 통합에는 특히 시상에 따라 특정화되는 "준의무적통합

"도 포함된다. 현재지속상 "-는-"이나 회상 "-더-"는 "-다"와의 관계에서 의무적 통합이다. ("-더-"와의 통합에서는 "-다 → -라"), 그러나, 완료상 "-았-"이나 추정상 "-겠-"은 "-다"와의 통합관계가 비의무적이다. 그것은 "-았-", "-겠-"은 "-다" 앞의 다른 가지와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쪽에서 보면, "-았-", "-겠-"은 의무적 통합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았다", "-겠다"는 준의무적 통합형이라 하겠다. 이 준의무적 통합제는 또한 높임법과 의항법을 생성하므로 새로운 낱당이 최소형이 된다. 이제 시상과만 통합관계를 가지는 의무적 통합 최소형과 준의무적 통합 최소형의 보기를 들어 본다.

의무적 통합 최소형:

- 는다 = 6-8 : 아주낮춤.서실법
- 더라 (← -더다) = 6-8 : 아주낮춤.서실법 (회상)
- 는가 = 6-8 : 예사낮춤.물음법
- 을까 = 6-8 : 예사낮춤.물음법 (추정)

이 밖에, 동작성 줄기에는 "-는-" 이나 "-다"와 의무적 통합을 하는 느낌법 유형이 다양하다. 이들은 높임법 등분에 따른 여러가지 최소형을 형성한다. 이 최소형의 어순은 모두 6-8이다:

- ;는구나/는군/는군요/는구료/는구면/는도다/
- 더구나/더군/더구료/더구면 = 6-8

준의무적 통합 최소형:

- 았다 = 4-8 : 아주낮춤.서실법
- 겠다 = 4-8 : 아주낮춤.서실법 (추정)

이 밖에 "-았-"이나 "-겠-"과 준의무적 통합을 하는 느낌법의 유형이 다양하다. 이들은 높임법 등분에 따른 여러가지 최소형을 형성한다. 어순은 모두 4-8이다:

- 았구나/-았군/-았군요/-았구료/-았구면/-았도다
- 겠구나/-겠군/-겠군요/-겠구면/-겠도다 = 4-8

동작성 줄기에서 시킵법 "-어라", 시킵법 또는 서실법 "-으오", 약속법 "-오마"는 맺음가지 만으로서 줄기와 직결되는 비의무적 율최소형이 됨이 특이하다. 이 중 "-으오"는 다시 의무적 통합요소와 통합하여 겹최소형 "-으십시오"를 이룬다. 이는 위의 "비의무./의무."의 대목에서 다룰 문제이다.

2) 비동작성 줄기 (-Vst, Cat)의 경우.

비동작성 줄기의 경우는 동작성 줄기의 경우와는 달리, 맺음가지 "-다"는 줄기에 직결되며, 아주낮춤.서실법의 율최소형이 된다.

$$: \begin{bmatrix} -v \\ \quad \end{bmatrix} \text{ -다} \\ \quad \quad \quad \text{c} \quad \text{st}$$

따라서 여기에서는 의무적 통합으로 "-습니-", "-습디-", "-더이-" 따위를 얻는다. 이것은 의합법이 미완성된 단순한 높임법 자원의 일차원의 의무적 통합형에 불과하다. 이것을 그대로 최소형으로 보기 보다는 이에 덧붙여 "-다"를 통합한 "-습니다", "-습디다", "-더이다"를 최소형으로 봄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v 에서의 최소형이 덧붙여진 것을 통합한 것으로 나타남이 원칙이라는 최소형의 동형성적 합리성을 띠기 때문이다. 둘째, -v, c 에서도 물음법 덧붙여진 "-까"는 의무적 통합을 요하는데 (-을까/-은까)², 이러한 것에도 동형성적 합리성을 띠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

² 15세기 말에서는 이와는 달리, 월 맺는 풀이말 노릇을 하는 이름씨 아래나, 갑음씨 줄기 "아니"에 직접 '-고 물음법'과 '-가 물음법' 형태소가 통합되었다.

라도, 위의 최소형 "-습니다" 등은 '의무적 통합형 + 비의무적 통합형'의 풀이므로, 이는 뒤에서 다룰 2에 해당하나, 설명의 편의상 여기에서도 다루어 둔다.

-v, c 의 경우 최소형은 +v 의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v, c 의 경우는 +v 의 동형성에 따른다. 또한, -v, c 에는 예사높임·권유법 최소형 "-습시다"가 없다. 아주높임·시킴법 최소형 "-십시오" (이는 뒤에서 논의할 것임)도 없다. 그리고 +v 에 붙는 가지의 수와, -v, c 에 오는 가지의 수가 다르다. +v 의 경우는 sf_1^2 , -v 의 경우는 sf_1^2 , c 의 경우는 sf_1^2 이다. 그러므로 어순의 표시가 다르다. 그러나, 최소형 자체의 어순은 같다. 다음 보기에서 첫째 어순은 +v, 둘째 어순은 -v, 셋째 어순은 c에 붙는 어순이다.

-습니다 = 5-6-8/ 4-5-7/ 3-4-6

이로 보아 높임법 최소형은 덧붙여진 쪽에서 서로 이웃하여 통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동작성 줄기 (-vot, cat)에는 높임 등본에 따른 비의무적 2-킵법 홀최소형이 있을 뿐, 그 겹최소형은 없다. 따라서 +v 의 경우에서 본 높임법·2-킵법 겹최소형에서 시상의 통합이 빠진 형이 +v, c 의 경우의 홀최소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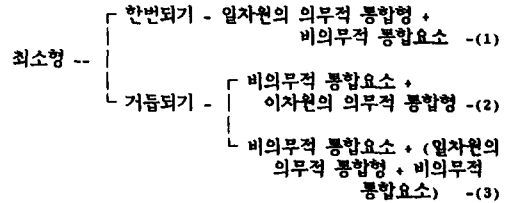
2. 의무적 통합형과 비의무적 통합요소로 된 최소형 형성.

이는 최소형의 생성 번 수에 따라, '최소형 한번되기'와 '최소형 거듭 되기'로 나뉜다.

'한번되기'는 -v, c 의 경우, 일차원의 의무적 통합형이 동형성에 따라, 비의무적 통합요소 "-다"를 통합하여 비로소 일차원의 최소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편의상 밝힌 바 있다).

'거듭되기'는 +v 의 경우 형성된 일차원의 의무적 통합의 최소

형이 다시 비의무적 통합요소 "-으시-"와 통합하여 새로운 최소형을 거듭 생성하는 경우와, -v, c 의 경우, 일차원의 비의무적 통합형과 비의무적 통합형으로 된 한번되기 최소형에 다시 비의무적 통합요소 "-으시-"와 통합하여 새로운 최소형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뉜다.



(1)은 -v, c 의 경우이다. 보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습니 - 다] 최소형

(2)는 +v 의 경우이다. 보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으시 - 습니다] 최소형¹ 최소형²

"-습니다"는 문맥상의 상황에 따라, 아주높임에 내포적 차이가 있다. 주제가 말할이 자신을 겸양하는 "제"나, 제3자 비존칭 "그" 일 때는, "-습니다"는 말들이 아주높임이 된다: **제가 습니다. 그 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2 인칭 아주높임일 때는 "-습니다"는 공존상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이 경우는 "-으시-"의 첨가를 받아 공존성이 수용된다: **선생님께서는 잘 습니다/가십니다.**

이는 "-습니다"와 "-으십니다" (← -으시 습니다)는 아주높임의 외연 안에 사인 내포적 차이로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반응이 다른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으십니다"는 새로이 생성되는 최소형으로 본다. 더구나, "-습디다"의 예사높임은 "-으십디다"가 되면서 아주높임의 최소형으로 거듭 생성되기도 한다. 앞에서 본 바 있는 +v 의 경우, "-습니다, -습디다, -습시다, ..." 따위에는 모두 "-으시-"를 첨가함으로써 최소형이 거듭 생성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으시-" 첨가에 의한 최소형 거듭되기는 말들이 아주높임에만 유효하다. 가령,

그 분께서 지위가 높으십니다

에서 보면, "-으시-"는 주제 3 인칭을 높이고, "-습니다"는 말들이 이를 높이는 것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여기 "-으십니다"는 최소형의 낱말이 아니다.

+v 의 경우 덧붙여진 "-으오"는 홀최소형이 됨이 저 "-다"와 다르다. "-으오"는 예사높임·서실법/물음법이다. 이는 의무적 통합

형 "-으십시오"와 통합하여 아주높임.시킴법의 최소형 "-으십시오"³를 거듭 생성함이 특이한 점이다:

³구성소 "-버시-"는 의무적 통합성이 불안전하다 (오버시오, ?하버시오, ?가버시오), "-으시버시-"는 안전성 있는 의무적 통합형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으시-"는 비의무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으십시오 [으오]에사놀¹아주높

이는 다만 의무 비의무의 통합순서가 바뀐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대목에서 다루어 둔다.

또한 비의무적 "-오오"는 다시 비의무적 "-으시-"와 통합하여 새로운 아주높임.시킴법의 최소형 "-으시오"(*-으시오오)를 이룬다. 이 문제는 편의상 이 대목에서 언급해 둔다. 그것은,

잡 -오오 → 잡 -으시오 → 잡 -으십시오와 같은 보기에서 "-으십시오"와 유관하기 때문이다.

(3)은 -v, c 의 경우이다. 보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으시 [습니-다]최소형¹최소형²

여기 최소형²의 생성은 결과적으로 위 (2)의 경우와 같다.

IV. 맺음.

가지에 의한 높임법 최소형 형성요건은 첫째, 본포상 가지가 줄기에 직접 통합할 것, 직접통합이 안 되면 다른 것과의 의무적 통합을 이룰 것, 둘째, 그러한 통합은 일정한 말본의미를 가질 것, 비의무적 통합요소와의 통합도 새로운 말본의미를 가질 것 등이다.

최소형은 풀이서 자질에 따라 다양하다. 최소형은 높임법과 의항법의 이차원적인 것이다. 모든 최소형 (홀, 갭)은 사전의 어휘항목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석득. 1977. 국어 존재의 같은 주고받음(reciprocal use)과 다른 주고받음(non-reciprocal use)에 대하여. 언어, 2:1, 43-46. 서울: 한국언어학회.
- 김석득. 1988. 구성요소의 뜻과 총합체 뜻과의 관계. 동방학지, 59: 69-129. 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석득. 1989. 마침법의 의항법 체계 - 마침법과 서법과의 관계. 이용주선생 회갑기념논문집. 서울.